



## 아버지 학교를 통한 은혜



“아버지 미국에 가서 공부할래요.”

어느 날 큰애가 엄마랑 이야기하 다 왔더니 나에게 불쑥 통보하듯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무슨 소리냐? 너 이제 겨우 17살인데 미국 가서 무슨 공부를 하겠다는 거냐? 지금까지 내가 보여준 그런 태도로는 안돼! 한국 공부에도 적응 못 하면서 무슨 미국 가서 공부하겠다는 거냐? 안되는 이유 첫째, 너는 공부에 집중하지 않아. 시간만 끌고 앉아 있지. 아무런 결실이 없어. 둘째, 친구들과 노는 데만 관심이 있지. 진짜 열심히 무얼 하겠다는 의지가 약해. 셋째, 넌 미국 가는 것이 공부하려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현실에서 도피하려 하는 거야. 미국 가서 노력할 그 노력을 지금 여기서 하지 그러느냐? 너 같은 녀석은 미국 가서도 안 돼! 장신자세가 틀렸어.”

이런 나의 질책에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아내와 큰애의 함작 때문에 큰애는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떠났다. 그 당시 내가 큰애한테 기졌던 불만을 지금 생각해 보면 대단히 부끄럽다. 왜냐하면, 당시 내가 기졌던 불만은 편협한 내 기준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아~ 우리 어릴 적엔 과외수업, 학원 한번 안 가보고도 다 했다! 그때는 부모한테 공부 하지 않는다고 꾸지람 한번 들어보지 못했다. 너희는 세상이 좋아 부축한 것 없는데 뭐가 불만이나~”

“이질 성격이라고 받아 오느냐?”

“교과 한다는 것이 그거냐? 쟁쟁없는 놈!”

큰애와 나의 사이는 점점 멀어져만 갔고 그 애가 미국으로 간 이후는 더더욱 대화의 기회도 없어졌다. 나는 ‘요즘 애들은 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했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키워주고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좋은 직장 가지도록 뒷바라지해주고 장기보내면 끝이라고 생각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의무적 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주지 못하는 자식은 거기까지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었다.

2004년 아내의 주위의 권유로 아버지학교에 입소하게 되었다. 오래전에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불완전했던 나의 신앙은 아버지학교를 계기로 마침내 말씀의 감동을 가슴에 적용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목사님들의 말씀과 강사들의 간증을 통해 나는 내가 가지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끼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매우 편협한 한낱 아무 쓸데 없는 공허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울부짖고 한탄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그 어떤 것들도 영원히 그리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세상에 씌어 없어질 것에 내가 너무 큰 가치를 두고 있었기에 가족이라는 구성원들에게 내가 너무 소홀했음을 고백하게 되었다. Q.O.를 통해 내 내면의 쓴 뿌리들을 전부 드러내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주님은 나를 회개하도록 하였고 이후 아내의 계속된 기도는 특히 큰 힘이 됐다. 하나님은 광복한 독재자나 잔인한 군주처럼 폭력을 사용해서 우리를 굴

복시켜 강제로 믿게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감동하게 하셔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분을 선택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지게 하셨다. 이것이 진정한 소통임을 깨닫게 되었다.

과연 내가 내 자녀에게 사랑을 가지고 진정으로 승복시켰는가? 아버지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누가복음 6장 4절 말씀 “또 아버지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 자녀를 대하고 양육하는 나의 기준은 결국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올바른 신앙생활과 말씀의 묵상 및 기도에 진념했다.

그전에는 내가 우리 애들에게 물질적 혜택을 주는 것이 그들을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부모로서 그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기준은 물질이었다. 내가 그렇게 자랐고 나의 부모가 그것 때문에 고생했으니 나의 손 뿌리는 물질문제가 주는 고통과 쾌락의 토양 속에 고착되어 있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처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깊은 사랑을 과연 나는 어떻게 우리 애들에게 전할만한가에 깊이 반성했다.

과연 내가 틈만 나면 용돈을 주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랑의 표현을 해왔던가. 나의 가장 값진 것이 아닌 가장 편하고 싼 것을 내 아이들에게 주지 않았던가. 애들이 가장 중요 한 시기에 그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빠와의 시간을 나는 별로 준 적이 없다. 나의 가장 소중한 자살인 시간을 줄 만큼 과연 내가 내 애들을 사랑했는가? 길게 대답해야 할 질문만 받아도 귀찮아서 암암리에 물어보라고 하지 않았던가. 무심코 애들에게 벌는 한 마디 한 마디가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애들이 아빠를 피하고 거리를 두게 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으로 애들을 키웠던 것이다.

아버지학교에서 많은 교육을 거쳐 나는 주님께서 그의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 포기하신 것처럼 나도 나의 자녀를 위해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을 배웠다. 어느덧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어휘도 폭력과 증오와 한탄으로부 터 온화와 감사와 축복으로 바뀌고 있었음을 스스로 조금씩 느끼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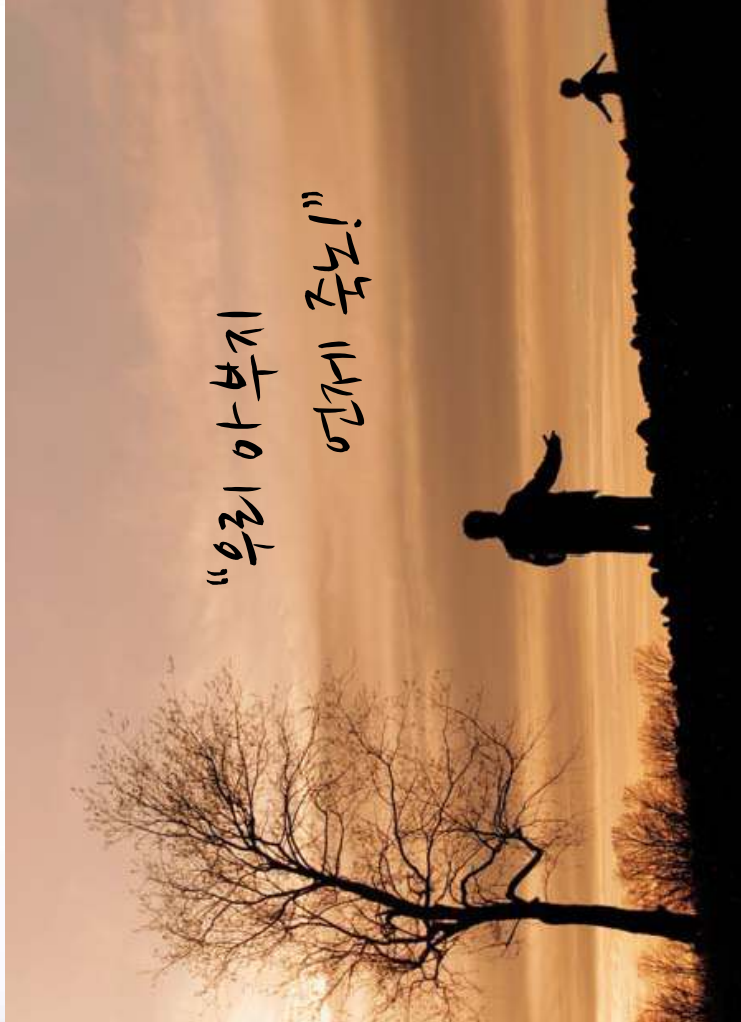
아버지학교 후 나의 생활은 점차 가족을 중요시하는 생활로 바뀌게 되었고 미국에 있는 큰애는 이부 말할 수 없는 방황과 고통을 겪고 점차 이러한 나의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아빠를 기쁘게 하려고 점차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공부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애한테서 어느 날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저 이번 중간시험에서 A 받았어요.”

“저 이번 학기 A도 받았어요, 엄마. 아빠가 기뻐하시겠지?”

“엄마! 아빠한테 잘해 드리. 아빠가 불쌍해.”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 정말 아버지학교는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부활시키는 은혜의 학교라 생각된다. 6



“우리 아버지  
언제 죽죠!”

나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이듬해인 1946년도에 태어났다. 다섯 살 되던 해 6·25전쟁이 나자 아버지는 일본으로 가는 밀항선을 타셨다. 몇 년 후 그렇게 기다리던 아버지가 귀국해 헤어졌던 우리 가족은 대구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하지만 반가움은 잠시였다. 불행하게도 나는 ‘아부지’라고 다정스럽게 불리려고 대화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 기대와 달리 아버지는 (그 당시 아버지 대부분이 그러하듯) 무서움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아버지는 불행하게도 교우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불쌍한 무학자였다. 일 본 오사카에서 직조공장의 기사로서 배워온 기술 덕분에 직장을 얻을 수 있었다. 당시 섬유산업이 번성했던 대구시 빈두리 지역에서 근근이 일에 풀칠 하는 지난 속에 살았다. 문제는 아버지의 술버릇이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돌아올 때 가끔 술을 드시고 오셨다. 술을 드시고 온 날에는 어머니와 가족을 향해 갖은 욕설을 하셨다. 밤상이 날아가고 가구가 부서지는 일들이 있었다.



김영배 한국영자  
총협회 상임부회장,  
조지아대학교 경제  
학 박사